

희망의 공동체를 향하여

박영숙 본 재단 이사장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때로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데서 누구나 반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성 평등을 지향하며 여성 복지를 추구해온 여성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온 한국여성재단이 600년만의 황금돼지해에 꾸어야 하는 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해년 벽두의 세상의 화두는 단연 <희망>이었습니다. 꼭 막혀 질식할 것만 같은 제반사회현상에서 사람들이 내일을 있게 하는 힘인 희망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달동네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간식도 특강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15살짜리 소녀가 '가난 자체는 이길 수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다'(한겨레 06-12-26)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희망은 삶의 필수조건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을 기치로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이 2007년 한 해 동안 희망의 공동체 만들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2007년 희망의 이정표로서 5대 불안을 벗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집, 일자리, 노후, 자녀교육 그리고 평화문제의 중요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성도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르고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정도 쉽지는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여성계가 문제 삼았던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현상인 '빈곤의 여성화'가 단적인 예입니다. 빈곤가정 중 여성가장의 비율이 45.8%,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70%,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보다 2.7배나 되는 42%인 현상은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로 남성에 비하여 3배나 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꺼리인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그리고 의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입니다. 경제적 성별 불균형의 벽을 그대로 둔 채 여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경쟁력이 되고 여성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서 근래에 와서 경제적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성별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성정책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은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희망의 길잡이인 한국여성재단이 헤쳐 나가야 하는 우선과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의 몫을 각 부문에서 확실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희망의 공동체를 창조해낼 원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여성 친화적이며 민주적인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확실한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산다고 했습니다. 함께 꿈을 꾸시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고 계시는 후원자, 파트너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비오며 새해인사 드립니다. 희망을 많이 지어서 나누세요.